“세상 이끌어 온 것은 아이들의 상상력”

2021 새로운 출발 〈10〉 동화작가 염연화

나에게 글쓰기는 휴식이며 탈출구
치매 시어머니 모시며 창작 활동
지금 살아가는 아이들 고민에 집중
보성 민중 삶 그린 동화책 발간 예정

문학은 현실을 그리는 예술이지만, 한편으로 고단함을 견디게 하는 힘이다.

염연화(사진) 동화작가를 인터뷰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 염 작가는 현실의 고통을 잊기 위해, 아니 고달픈 삶을 있는 그대로 글로 표현했다. 그는 아픈 시부모님을 20년 가까이 모시고 살았다. 얼마 전 치매 증세가 있으셨던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시아버지는 그 전에 돌아가셨다.

“그렇게 힘들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단지 글을 쓸 수 없는 시간이 없다는 것이 안타까웠지요.”

아마도 잠시라도 집을 벗어나는 것이 휴식이었을 것 같다. 최근 인터뷰를 하기 위해 서구 광천동 신일 작은도서관에서 염 작가를 만났다. 틈틈이 이곳에 들러 함께 글을 쓰는 사람들과 공부도 하고 정보도 교환한다고 한다. 초면에도 약해보이는 인상이었다. 글쓰기만큼 뒷심과 체력을 요하는 부분이 없을 텐데, 어떻게 창작을 하는지 의문이 들었다. 솔직히 말하면 걱정부터 앞섰다.

“오랫동안 시부모님을 모시며 직장생활을 병행하느라 늘 시간에 쫓기듯 살았습니다. 일상에 지친 저에게 글쓰기는 휴식이며 탈출구였으니까요. 글을 쓸 수 있는 시간만 주어지면 오직 글 쓰는 일에만 열을 올렸지요.”

염 작가의 말에서 ‘쳇바퀴 위의 다람쥐’가 떠올랐다. 아니 반복해서 바위를 밀어 올려야 하는 ‘시지프스’가 연상되기도 했다. 그는 “글쓰기가 뜻대로 안 돼” 작가로서 자신감이 떨어질 때도 많았다고 고백했다.

그럴 때면 스스로를 다잡아야 했다. 바로 ‘사람마다 역량이 다름을 인정하고 거북이처럼 내 길을 묵묵히 걷자고 격려하는 것’이다. 남과 비교하다 보면 페이스를 잃어버리기 십상이다. 저마다 창작 과정의 스타일과 패턴이 다른데 “굳이 다른 이들에 자신을 대입해 실망할 필요가 없었다”며 웃었다.

염 작가는 “집중력이 부족한데다 두통을 자주 앓고 체력이 약하다”며 “자영업을 하는 남편 사무실에 출근해 일을 돕느라 시간이 빠듯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때는 글 쓰는 일에만 몰두한 나머지 내 아이가 힘들어할 때 온전히 상처를 보듬어주지 못했다”며 말끝을 흐렸다.

그런 지난한 여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창작의 고통을 기꺼이 즐기며 무엇보다 아동문학의 힘을 믿는다. “성인문학 못지 않은 수준 높은 문학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아서인지 창작 자체가 더없이 소중하다.

“대학 다닐 때 시, 소설을 공부했지만 동화를 쓰겠다는 생각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주변에 아동문학을 하는 사람도 없었구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동문학은 어린이가 읽는 전래동화, 세계명작동화 정도로만 알고 있었죠.”

한마디로 아동문학에 대해 편협했고 무지했다. 그러다 동화를 쓰는 아는 언니가 ‘동화 한 번 써보라’는 말에 용기를 내게 되었다.

마침내 2013년 지역 일간지 신춘문예에 등단을 하게 된다. 이후 창작집 ‘두근두근 우체통’, 장편동화 ‘소똥 경단이 떼구루루’와 ‘동생 만들기 방해작전’ 그리고 청소년 소설집 ‘브라보 마이 라이프’를 펴냈다.

염 작가는 “외국의 작가로는 미하일 엔데를 좋아한다”며 “‘마법의 설탕 두 조각’은 아이의 심리를 아주 잘 그린 재미있는 작품”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로이스 로리의 ‘기억전달자’, ‘파랑채집가’ 같은 SF 이야기도 좋아하는데, 국내 작가 중에는 SF를 소재로 작품을 쓴 최영희 작가를 좋아한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이후로는 이전과 다른 세상이 펼쳐질 것 같다. 빠르게 변하는 시대인만큼 아이들의 관심 또한 다양해지고 사고의 폭도 넓어질 것이다. 동화가 무언가를 강요하거나 가르치려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다.

“시대와 소통하며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동화의 독자는 현재를 살아가는 어린이니까요. 작가의 어렸을 때 이야기가 아닌 지금을 살아가는 아이의 관심과 고민에 집중해야죠.”

올해 세 권의 동화책을 발간할 계획이다. 오랫동안 고민해왔던 주제에 매달려 볼 참이다. “6·25 한국전쟁 당시 보도연맹학살로 희생된 보성 지역 민중들의 삶”을 배경으로, 꿈조차 꿀 수 없었던 아이의 아픈 이야기를 그릴 예정이다.

염 작가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꾸준히 동화를 창작할 생각이다. 세상을 이끌어 온 것은 아이들의 동화같은 상상력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한권의 책을 읽고 펼치는 상상력은 먼 우주까지도 닿을 수 있지요. 상상력은 호기심에서 출발하는데 우리 어린이들이 엉뚱한 생각도 많이 하고 무한한 상상력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끝〉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치매 앓는 배우 윤정희 佛서 방치” 주장
백건우 측 “해당 내용 근거없는 거짓”

청원인, 靑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 올려
백씨 측 “옆집 사는 딸이 정기적 돌봐”

배우 윤정희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고 있는 배우 윤정희(77·본명 손미자)가 프랑스에서 배우자인 피아니스트 백건우와 딸로부터 방치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백건우의 국내 소속사 빈체로는 7일 입장문을 내고 “백건우와 그의 딸에 대해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해당 내용은 거짓이며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빈체로는 “두 사람은 평생 함께 연주 여행을 다녔지만 몇 년 전부터 윤정희의 건강이 빠르게 악화하며 동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요양병원보다는 딸의 아파트 옆집에서 가족과 법원에서 지정한 간병인의 돌봄 아래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정희는 주기적인 의사의 왕진 및 치료와 함께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다”며 “제한된 전화 및 방문 약속은 모두 법원의 판결 아래 결정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빈체로는 2019년 5월 윤정희가 파리로 간 뒤 윤정희의 형제자매 측과 후견인 선임 및 방식에 관해 법정 분쟁이 시작됐다고 전했다. 지난해 11월 파리고등법원의 판결로 형제자매 측이 최종 패소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윤정희의 형제자매 측은 재판과정에서도 같은 주장을 펼쳤지만, 프랑스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빈체로는 밝혔다.

문화계에 따르면 프랑스 법원 결정문에는 “윤정희의 배우자 및 딸, 한국 가족과 관련해 피성년후견인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윤정희의 한국 가족은 윤정희가 적절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있고, 금전적인 횡령이 의심된다고 주장한다”며 “변론 내용과 관련 서류를 살펴본 결과 근거 없는 주장”이라는 취지의 판단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윤정희는 배우자 및 딸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면서 “현재 안전하고 친숙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매우 안락한 조건을 누리고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 청원인은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외부와 단절된 채 하루하루 쓰러져가는 영화배우 윤정희를 구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청원인은 윤정희에 대해 “남편과 별거 상태로 배우자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파리 외곽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홀로 외로이 알츠하이머와 당뇨와 투병 중”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배우자와 딸로부터 방치된 채 대부분의 시간을 홀로 힘든 투병 생활을 하고 있다. 혼자서 나가지도 못하고 감옥 같은 생활을 한다”고 덧붙였다. 또 “딸에게 (윤정희의) 형제들이 자유롭게 전화와 방문을 할 수 있도록 수차례 요청했으나 감옥의 죄수를 면회하듯이 횟수와 시간을 정해줬다”며 “전화는 한 달에 한 번 30분, 방문은 3개월에 한 번씩 2시간이다. 개인의 자유가 심각하게 유린당하고 있고 인간의 기본권을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편은 아내를 안 본 지 2년이 됐다. 자기는 더 못하겠다면서 (윤정희의) 형제들한테 간병 치료를 떠맡겼다”고 주장하며 “한국에서 제대로 된 간병과 치료를 받으며 남은 생을 편안히 보냈으면 하는 게 간절한 바람”이라고 적었다.

이 주장의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윤정희의 한 여동생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금은 통화가 어렵다”고만 말했다.

윤정희와 20여 년간 알고 지내고 있다는 한 지인은 “청원 내용은 100% 거짓말”이라며 “(프랑스 집에) 간병인이 있고, 작년 크리스마스에도 딸과 손주와 함께 보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윤정희와 백건우는 1976년 결혼해 바이올리니스트로 활동 중인 딸 한 명을 뒀다. 윤정희는 1966년 영화 ‘청춘극장’으로 데뷔해 ‘위기의 여자’ 등 330여 편에 출연했으며 ‘시’로 칸영화제 레드카펫을 밟았다. /연합뉴스

전남여성가족재단 ‘女新 나르샤’ 참여자 공모

전남여성가족재단은 도내 여성신진작가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전남여성문화박물관 공모전 ‘女新(여신)나르샤’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공모전은 개인전 경력이 없는 여성신진작가를 발굴해 세상에 첫 발을 내딛을 수 있도록 등용문 역할을 수행한다. 당선자에게는 생애 첫 개인전 지원과 작품 사진촬영, 작품 평론과 같은 특전이 주어진다.

도내 거주하거나 활동 중이며 개인전 경력이 없는 여성문화·예술인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모집부문은 여성문화·예술 전 분야(미술 : 회화·조소·금속·도예), 공예(가죽·한지·천연염색·규방 등), 복식, 디자인 등이다.

접수는 4월 21일까지이며, 전남여성문화박물관 심사기준에 따라 적합성, 작품성, 향후 성장가능성, 기타 항목을 총 100점으로 심사해 최종 4명을 선정한다. 당선자는 전남여성가족재단 누리집을 통해 4월 말 공지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정선영 작가(광양, 서양화)와 노미란 작가(목포, 섬유공예)가 공모전에 당선돼 초대 개인전 및 제휴작가 전시, 유튜브 온라인 전시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문의 061-260-7331.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광주여성의전화, 상담학교 수강생 20명 모집

26일까지 신청 접수

(사)광주여성의전화가 제32기 상담학교 수강생을 모집한다. 상담학교는 여성주의 상담을 지향하는 상담원 양성교육 프로그램이다.

총 8강좌로 구성된 교육은 3월 3일~18일(매주 수·목·금 오전 10시~낮 12시) 광주여성의전화 혜심교육실(광주시 서구 내방로 40번길 15)에서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여성주의 상담이론, 여성주의 상담 사례 연구, 가정폭력·성폭력 관련 법률, 여성폭력의 현황 및 과제 등이다.

자원상담활동을 원하거나 상담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26일까지 이메일 또는 팩스로 참가신청서를 보내면 된다. 선착순 20명 선발한다.

광주여성의전화는 여성인권운동단체로서 지역 여성운동의 새로운 통로와 여성의 폭넓은 활동의 장 마련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다. 문의 062-363-0487.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청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12차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